

행복의 윤리와 생로병사(生老病死) - 생명과 죽음의 이해*

오지석 (경민대학)

I. 들어가는 말

II. 행복의 윤리와 생로병사

1. 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행복으로 풀어야 하는가?
2.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생로병사
3. 행복의 윤리와 생명윤리의 융합

III. 나오는 말 -행복, 생로병사를 통한 생명윤리 주제의 다변화 가능성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31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1-35C-A00316)

• ABSTRACT •

Ethics, Happiness and The four Phases of Life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Life and Death

O, Ji-Seok

The Ethics of Happiness and the four phases of life makes us have the paradigm shift which we could get the essence of christian bioethics. Futhermore if I could find out the proper questions, and I could increase the desire to search for it's answers, then I would hope sooner or later to arrive at the goal, even whatever it is. Such attitudes also will be applied directl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thics of Happiness and the four phases of life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the meaning of life in christian bioethics.

Through these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s, I would try to propose the model of lecture that opens and improves the possibility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meaning of happiness and bioethics for the students themselves who attend the liberal arts.

Key Words: happiness, ethics, life death, the four of life,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치루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굳이 여러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특히 생로병사(生老病死)로 일컬어지는 인생의 문제에서 well-being, healing, well-dying이라는 화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리를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젊음과 편안한 죽음이라는 화두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세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명윤리담론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의료계가 주도한 ‘생명’과 ‘죽음’이라는 화두도 단순히 의료윤리의 문제로 한정되기 보다는 삶의 현장의 문제가 되고 있다.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복제나 인간이라면 자신의 의지대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구조적 문제든 간에 자살을 부추이기는 사회라 일컬어지는 현실, 그리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임신중절까지 강단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문제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붓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고, 학자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구름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특히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담론은 주로 의학과 생명과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서구에서 시작된 논의이고, 기독교윤리의 담론도 그에 맞춰 진행되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생명과학의 영역에서 그 담론의 주제와 진행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경향은 윤리와 생명과학의 문제를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의료문제 또는 생명과학의 문제에 만 매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은 생명과학이 생명의 존엄성을 으뜸의 가치로 여기는 인문학적, 종교적 가치와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마도 이런 담론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과정을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행복과 생명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차원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거나 제한된 자료와 외국 사례를 통한 조사,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담론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심각하지만 옆에 있지만 자기의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논의의 한계 또는 교육의 한계를 드러낸다. 어쩌면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담론들이 우리의 현실보다는 서구의 현실과 고민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실, 삶의 현장을 토대로 고민하고, 궁극함에 대해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생명과 죽음의 담론, 달리표현하면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¹⁾ 지금까지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는 ‘생명윤리, 또는 생명의료윤리’의 정의, ‘안락사(혹은 존엄사)’, ‘임신중절’, ‘인공수정’, ‘배아복제’, ‘장기이식’, ‘생명공학’, ‘뇌사’ 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들이 안고 있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인생의 문제, 달리말해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에 시달리고 늙고 죽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로병사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삶의 자리

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2014년 펴낸『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자율성과 몸의 지위』(로드스출판사), 서문을 보면 이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생명윤리 분야의 쟁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제는 ‘낙태’나 ‘안락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윤리의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들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들은 그에 따른 많은 윤리적 문제는 낳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담론과 해결책에 대한 갈증이 따른다.

이 연구는 이 갈증에 대한 궁금함에서 출발한다. 달리말하자면 ‘왜’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한다. ‘왜’라는 말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해소된다. 하지만 윤리의 문제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접근에 패러다임 변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보면 적어도 대학 강단에서 교양분야로 행해지는 ‘생명윤리’ 과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박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

둘째로, 21세기의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행복담론의 재발견은 우리에게 기독교윤리학 특히 기독교생명윤리 담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신자유주의의 소용돌이가 몰아쳤고, 아직도 그 영향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는 절실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라는 주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철학에서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많은 서양의 사상가로 하여금 자신의 행복론을 남기게 하였다. 이런 행복담론은 개인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행복담론을 추구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사적 행복담론을 넘어서는 공적 행복 담론이 필요하다. 그럴 때 단순히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사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의 담론에서 ‘생로병사’라는 인간 삶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라는 다분히 고전적 주제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교회의 담론을 공적 담론에 입장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상황, 특히 대학교양과목(인성 또는 기독교관련)으로서의 ‘생명윤리’ 또는 ‘기독교생명윤리’라 이해되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를 기독교윤리적으로 성찰하고자하는 데 있다.

II. 행복의 윤리와 생로병사 : 생명과 죽음의 기독교윤리적 이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생명윤리(bio-ethics)가 특정분야가 독점하는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생로병사’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덕의 윤리가 화려하게 재기한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포기되지 않은 ‘행복’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굳이 모든 학술검색엔진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주제어 행복, 생명과 죽음, 생명윤리, 생로병사로 검색하면 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²⁾ 특히 다른 주제어는 나름대로 학문적 성과들이 문헌학적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 ‘생로병사’라는 주제어에서는 마치 특정 미디어가 독점하고 있는 양태를 띤다.

2) ‘행복’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검색해보면, 학위논문132편, 국내학술지논문 158편, 단행본 457권, 공개강의 2, 기타자료가 14개로 모두 763건이 나온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학위논문은 74편, 국내학술지논문은 69편, 단행본은 1,656권, 공개강의 5건, 기타자료 4건이 있으며, ‘생명과 죽음’으로 검색해보면, 학위논문 1,647편, 국내학술지논문 857편, 단행본 8,514권, 공개강의 4건, 기타자료 54건으로 나온다.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검색하면 학위논문은 1,566편, 국내학술지논문은 2,098편, 학술지는 5권, 단행본은 4,620권, 공개강의 16건, 기타자료는 137건이다.(2014년 6월 기준)

그러다보니 행복, 생명과 죽음, 그리고 생로병사의 문제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영역처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윤리를 다루는 인문학적 접근이나 신학적 접근은 문시영의 지적처럼 ‘이웃집 기웃거리기’나 ‘어설피 학문적 흉내 내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³⁾ 우리가 알다시피 의료윤리에서 다루는 개념과 범위는 첫째, 생명을 다루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달리말해 의료인들 사이, 의사와 환자, 의사와 환자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둘째는 삶과 죽음의 정의에 관한 윤리적 문제이다. 셋째, 의료자원의 분배의 문제, 즉 의료정의의 문제 및 의료제도에 관한 윤리적 문제이다.⁴⁾ 의료윤리는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위치를 다지고 발전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경향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연구에 잘 나타나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를 전공하는 이가 아닌 인문학자나 신학자 가운데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성찰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술, 과학 이라는 화두에 붙잡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이라는 화두로 생명윤리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면, 생명과 죽음, 또는 생명윤리의 담론의 주인공으로 의료계나 생명과학만이 이 담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담론장의 링 주변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 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행복으로 풀어야 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윤리학 강의Lecture on Ethics>에서 “윤리학”을 단지 행동의 좋고 나쁨의 문제나 성격의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는 인생의 의미

3) 문시영, 『생명윤리의 신학적 기초』, 금호출, 2012, 60.

4) N. Fortion, 김일순 공저,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9, 31~41면 참조.

에 대한 탐구였다고 이해한다.⁵⁾ 이런 관점을 생명윤리에 적용해보면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단순히 사례 속에 다루고 있는 의료정보만으로 그쳐서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우리는 생명윤리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제공된 의료정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묻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행복이란 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행복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과 함께 해왔다. 특히 고대 서양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는 중요하게 이 행복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고대 서양철학자들은 행복이 인간 삶의 목표라는 통찰아래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전개했고, 그 흔적을 행복론이라는 흔적을 남겼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서양 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서서히 그 영역을 의료분야로 넓혀갔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행복론 또는 행복담론은 더 이상 철학자나 신학자들만의 담론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경제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과학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이들이 주도하는 담론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병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의료계, 과학계에서 더욱 향상된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명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삶의 질 영역이 확대되어온 것이다. '삶의 질'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즐거움 삶', '가치있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면 생명윤리 담론에

5) 칼 엘리어트, 『철학적인 병』, 김종주 역, 인간사랑, 2005, 43.

서 우리 사회를 임신중절을 강요하거나 삶의 질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고, 식물상태의 환자, 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 난치병 환자들을 불행한 삶 혹은 가치 없는 삶을 고통 속에서 마지못해 이어가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많은 논의와 글쓰기에서 우리가 출구를 찾으려면 앞서 인용했던 20세기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윤리학’에 대한 생각을 빌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행복담론을 통해 생로병사로 대변되는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생명윤리의 주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인간의 영원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물음에 대해 폴 램지(Paul Ramsey)를 위시하여 많은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그 답을 제시해왔고, 반성적 작업을 다시 시도할 때가 도달하였다. 기독교윤리학이 생명과 건강,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생명과학에 대해 따지를 거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보다 생명과 죽음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공동체적 돌봄을 시도할 때 생명윤리의 주제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건강하게 또 영원히 살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성서는 늘 생명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점은 잘 사는 것(well-being)이 바로 잘 죽은 것(well-dying)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은 그가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생로병사(生老病死)

지금까지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어떤 것들일까? 생명윤

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앞서 검색을 통해 알아봤던 것처럼 4,620권이나 된다. 이것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비교적 입문서나 개론서, 또는 대학 교양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몬 루카스에 따르면 생명윤리의 주요 주제들과 문제들은 인간과 원리(인간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근본 원리), 인간의 출산(성, 자연출산, 인공수정, 임신의 자연조절, 피임, 불임), 인간 유전학(계놈,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복제와 줄기세포), 배아(인간배아, 임신중절, 산전産前진단,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 말기 단계의 생명(통증과 고통의 의미, 안락사, 의료 집착, 완화 의료, 뇌사와 장기이식) 등이다.⁶⁾ 김성환의 『생명윤리』에서는 임신중절, 동물의 도덕적 지위, 안락사, 인간복제 등을 다루고 있다.⁷⁾ 전복규가 쓴 『생명윤리아기』를 살펴보면 생명윤리, 유전자, 계놈, 유전정보, 배아, 인간복제, 연구윤리, 장기이식, 뇌사와 안락사, 이종이식, 인공장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 그리고 대학 교양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영모가 엮은 『생명의료윤리』⁹⁾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생명의료윤리의 정의’, ‘안락사’, ‘인간생명의 시작’, ‘여성과 낙태’, ‘장기이식’, ‘계놈 프로젝트’, ‘인간복제’, ‘임상연구의 윤리’, ‘시민사회와 과학기술’, ‘생명공학과 생태계’, ‘유전자 조작’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명윤리의 주제를 볼 때 좀 더 생명윤리의 주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더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적 입장에서 생명의 의미는 그 시대적 환경에서 도출된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박하면서 변천을 거듭해왔고 또 확장되어 왔다.

6) 라몬 루카스, 『알기쉬운 생명윤리』, 김명수 역, 가톨릭출판사, 2007.

7) 김성환, 『생명윤리』, 철학과현실사, 2008.

8) 권복규, 『생명윤리아기-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 책세상, 2011.

9)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8.

오늘날 과학적 입장에서 생명의 의미를 묻는다면 생기론¹⁰⁾과 기계론¹¹⁾ 그리고 유기체주의¹²⁾ 사이의 어디쯤에 놓여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이란 “목숨(bios)”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은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생명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된다. 생명이란 인격적이며,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활동이다.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그 부수적인 자질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삶은 행복하거나 완전하거나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러한 연약하고 고통 받는 존재들의 가치나 존엄이 덜하다는 생각에 단호히 반대한다. 곧 “인간 생명의 가치라는 표현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 누리는 가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 삶은 더 이상 바람직하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소멸시킬

10) 생기론은 생명체란 불활성물질에서 발견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의 이론이나 개념들은 물리화학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20년경 생기론은 생리학자 홀데인(J. S. Haldane)의 “이제 생물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생기론을 공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고 이야기함으로써 생기론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그는 기계론에 대해서도 순수한 기계론적 해석이 생명의 특징인 자기조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교양교육을 위한 현대과학과 생명교육」, 『교양교육연구』(제7권 제3호), 2013. 248.

11) 기계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기계론자 혹은 물리주의자라고 한다.

12) 유기체론은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다층적 질서를 가진 체계로, 물리주의와 생기론의 측면을 일정 정도 포괄한다. 유기체론 또는 유기체주의는 1919년 리터(W. E. Ritter)가 처음 만들었으며, 유기체주의는 살아 있는 존재는 조직을 갖고, 특성을 또는 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기능이 전적으로 조직, 상호관계, 상호작용, 상호의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같은 글, 250.

수 있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선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존재 체험과 함께 살아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³⁾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는 고통, 성적 욕구, 늙어감, 죽음과 같은 현상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내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실존’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물학적 현상의 실존적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할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사라지는 걸까? 등의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폴 램지는 “절대적으로 독특하며, 침해할 수 없음을 대신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른 생명들과 대체할 수 없으며 혼합될 수 없는 것”¹⁴⁾이라고 이야기한다. 달리 말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므로 젊은 나이가 들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배아든 신생아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인간이라면 그 가치는 그 수행 능력이나 삶의 질과는 무관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생명은 신성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한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존엄한 선물인 것이다.

생로병사의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¹⁵⁾ 태어남의 문제는 출산권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며,

13) Faggioni M.,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in the light of Christian anthropology, in Elio Sgreccia & Ignatio Carrasco (Ed.), p.29~30. <http://cafe.naver.com/leedongik/1096> 재인용.

14) Paul Ramsey, quoted in "On Paul Ramsey" by David H. Smith, *Second Opinion*, vol. 6, November 1987.

15) 이런 생각에 단초가 된 것은 문시영의 『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과 『생명윤리의 신학적 기초』에 나타난 생명윤리에 대한 통전적이고, 책임윤리적 입장이다.

늪어감의 문제는 인간수명 연장에 따른 문제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타인과 나를 구분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경험이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죽음은 언제나 간접 경험한다. 죽음은 생명이 자신의 선택과 관련 있는지를 묻게 된다.

생명에 대한 물음은 ‘산다는 것이 뭐야?’라는 일상적 푸념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생명은 또 무엇인가’라는 다분히 인문학적, 과학적 물음을 돌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선택 문제라는 생명윤리의 고민은 좀 더 확장되어서 생로병사라는 인생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행복의 윤리와 생명 윤리의 융합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소위 ‘웰빙’, ‘삶의 질’ 또는 ‘행복’이라는 말마디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눈을 뜨면 쉴 틈 없이 전해지는 ‘웰빙’ 또는 ‘행복담론’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¹⁶⁾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행복’이란 우선 복된 좋은 운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행운 혹은 좋은 운수, 성공, 번영’이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어쩌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고, 계속 노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1990년대 후반에 폭풍처럼 몰아친 이른바 ‘웰빙’, ‘삶의 질’, ‘행복’ 신드

16) 연요한은 1990년대에 이르러 행복담론들이 현저히 증폭되었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한국사회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행복담론에 너무 자주 많이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은 마치 그 담론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게 된다. 연요한, 『기독교윤리학의 맥락에서 본 ‘행복’개념』,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2집, 2011, 170.

롬때문에 어느 누구나 ‘웰빙’이라는 말을 편안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웰빙과 행복은 같은 말인지 아니면 가족유사성이 있는 말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표기할 때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영어로는 happiness로 이해된다. 하지만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aims는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영어는 ‘happiness’보다 ‘well-being’이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이 ‘well-being’이라는 말을 우리말 ‘참살이’, 또는 ‘좋은 삶’으로 대체하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어느 새 한국인들은 먹고 마시고 몸을 치장하는 웰빙과 개인의 행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론에 폭 빠져있다.¹⁷⁾

행복은 각 개인이 삶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고, 외부의 환경에 대해 어떤 심리상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혹은 심리상태에 따라 행복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반신환은 행복을 주관적 행복(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과 심리적 행복(긍정적 정서 등의 심리학적 이론)이라고 나뉘 설명한다.¹⁸⁾ 하지만 개인적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행복도 있다. 때로는 행복한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어야 한다. 이종원은 온전한 행복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넘어 그의 삶 전체가 가치 있는 행위의 차원으로 드러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또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주장한다.¹⁹⁾ 따라서 행복은 개

17) 이종원은 이런 웰빙의 흥수시대를 에릭 윌슨(Eric G. Wilson)의 말을 빌려 ‘만족을 제일로 아는 행복 완전 정복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이종원, 「온전한 행복의 조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 2013, 58.

18) 반신환, 「행복한 가족의 특징」, 『대학과선교』8집, 대학과선교학회, 2005년 2월, 325 참고.

19) 이종원, 같은 글, 64.

인의 주관적인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다차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문화화 경제지상주의적인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행복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차원의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나 공동체 행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 답하려다 보면 인간생명과 관계있는 다양한 담론들을 만나게 된다.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생명윤리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특히 삶과 죽음과 연관된 치료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답을 내놓아야 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문제들이다. 더욱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간생명에 대한 담론에서 우리는 인간존엄성의 의미, 생명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생명이다.”라는 생명에의 경외 사상은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또한 칸트(I. Kant)에 따르면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이용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기능적으로 정의하거나 유용성에 따라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이 그 자체로서 궁극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업적이나 능력, 혹은 사회적 유용성이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구별은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일치하지 않으며, 창조와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생명 해석에도 일치할 수 없다. 생물학적 생명은 정신적·사회적 생활의 완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차원 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신학적·초월적, 그리고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생명의 차원도 물론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조건 없는 귀중한

선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²⁰⁾ 이런 입장은 책임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슈바이커는 힘의 사용과 연관된 책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중심적이거나 혹은 공동체 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책임적어야 함을 요구한다. 인간이 책임적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통전성과 관련되며, 생명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존중의 과제와 상응하도록 요구한다.²¹⁾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은 점점 인간 생명을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존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²²⁾ 생명을 선물로 보지 않고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인간은 오만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이 지닌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고, 생명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III. 나오는 말

: 행복, 생로병사를 통한 생명윤리 주제의 다변화 가능성

한국 사회는 황우석 사태, 세브란스 김씨 할머니의 경우 등을 통해 생명윤리의 문제가 구름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술한 논변과 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담론의 장에 초대된 윤리, 기독교 윤리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생명윤리에서 생명과 관련된 질문을 인문학적으로 제기할

20) 임종식·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2003, 19.

21) 이종원, 『기독교생명윤리』, 북코리아, 2013, 31.

22) 임종식·구인회, 같은 곳.

수 있어야겠다는 반성도 있다.

이 글은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죽음 담론에 행복의 담론을 더하고, 삶의 과정인 ‘생로병사’에 나타나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대학교양교육에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기독교윤리 분야에서 생명윤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반성을 담고자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윤리라는 분야가 의료윤리에서 비롯되었지만 의학에만 필수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향상된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생명윤리(학)는 도덕적 통찰을 하였던 윤리학, 기독교윤리, 법학, 사회과학, 공공정책학 등과 관련되는 학제간 연구이다. 길슨(Raanan Gillon)이 언급한 것처럼 생명윤리는 법적,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인 면과도 관련을 갖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 결정(판례), 입법, 잡다한 규정들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생명윤리는 의료윤리, 환경윤리, 인구문제,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빈곤, 차별, 범죄, 전쟁 등), 생물학 및 생명과학의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²³⁾ 생명윤리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갖는다. 그 특성은 생명윤리가 다루고 있는 연구분야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의 이론적 토대를 탐구하는 이론 생명윤리(theoretical bioethics), 둘째,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매일 겪게 되는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는 연구인 임상윤리학(clinical ethics) 셋째, 윤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예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정책적 해결을 추구하는 규정 및 정책 생명윤리(regulatory and policy bioethics) 넷째, 생명윤리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적 배경인 현실적인 삶과

23) Raanan Gillon, "Bioethics, Overview", Ruth Chadwick(ed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305. 이상목, 『동서양의 생명윤리』, 아카넷, 2010, 23에서 재인용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생명윤리를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문화적 생명윤리(cultural bioethics)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교양으로서의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생명(의료)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생명윤리에 대한 논변들은 생명윤리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서 담론의 장에서 기웃기웃거리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 가운데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시영의 큰 틀에서 보는 생명윤리에 대한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생명윤리적 관심이 단지 의료종사자, 생명과학종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모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명의 존엄과 신성함을 위해 돌보는 일을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명주권 및 영생과 구원의 문제와 연관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며 윤리학이 추구하는 행복과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생로병사의 화두로 생명윤리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필자가 N대학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강의 했던 주제와 이 연구주제를 강의에 적용한 주제를 비교함으로써 생명윤리의 주제의 다변화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N대학교 2011년 강의 계획서〉

- 3주차 생명이야기 1 - 생명이란 무엇인가?
- 4주차 생명이야기 2 - 동영상을 통해 본 생명이야기
- 5주차 생명이야기 3 - 기독교에서 본 생명
- 6주차 생명이야기 4 - 의료문제와 책임적 생명윤리(임신중절 등)
- 7주차 생명이야기 5 - 동영상을 통해 본 생명이야기 2
- 8주차 생명이야기 6 -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

- 10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1 -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일까?
- 11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2 - 고통없는 삶이 좋은 삶일까?
- 12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3 - 전쟁과 평화
- 13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4 - 내 몸은 진정 나의 것일까?
- 14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5 - 생물학적 이타주의가 가능할까?

〈N대학교 2012년 강의 계획서〉

- 2주차 행복으로의 초대: 생로병사의 이야기
- 3주차 생명이야기1(생) - 생명이란 무엇인가?
- 4주차 생명이야기2(생) - 동영상을 통해 본 생명이야기
- 5주차 생명이야기3(老) - 성장한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
- 6주차 생명이야기4(老) - 오래산다는 것과 잘 살아간다는 것
- 7주차 生老 -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 9주차 아픔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1(病) - 고통, 질병 그리고 좋은 삶
- 10주차 아픔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2(病) - 건강, 사회의 문제일까 개인의 문제일까
- 11주차 죽음을 말하다!(1) -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 12주차 죽음을 말하다!(2) - 자살, 안락사, 존엄사
- 13주차 고통스럽고, 아픈 이별을 말하다. - 영상물
- 14주차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 생물학적 이타주의가 가능할까

기말고사 후 면접 및 여러 방식으로 강의 후 학생들의 이해도를 살펴본
았다. 2011년 계획서와 강의 내용은 기존의 생명윤리에서 다루는 방식을
취했다. 배아복제, 임신중절, 죽음의 기준, 뇌사, 안락사, 인공수정의 문제
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흥미유발이 어려웠다. 2012년 강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접근하였다. 生의 문제에서는 출
산권, 임신중절, 인공수정, 맞춤형 아기 등을 다뤘고, 老의 문제에서는 청

년, 늙어감, 초고령화사회 등에 관심을 두었으며, 病의 문제에서는 고통, 질병과 의료문제에 대한 주제들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고, 死의 문제에서는 죽음의 의미, 사후세계, 뇌사, 장기기증, 안락사, 자살 등을 다뤘다. 행복과 생로병사를 통한 접근은 의료, 생명과학 중심의 생명윤리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생명 - 죽음이라는 윤리학의 주제는 20세기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주요한 탐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서구의 학문을 답습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한다. 생명윤리의 분야 가운데 문화적 생명윤리의 접근을 사용해서 생명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오래된 주제이지만 한국사회에 절실한 주제인 행복담론에 생명윤리의 담론을 입혀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에서 다룬다면, 철학과 의료과학,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담론보다 더욱 풍성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심도 있는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 문제를 좀 다른 외연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학문적·사회적·교육적 기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영계. 『행복학강의』. 새문사, 2010.
-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8.
- 구혜란. 「행복감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2009년 12월.
- 권복규. 『생명윤리이야기-꿈꾸는 과학 도전받는 인간』. 책세상, 2011.
- 김선욱. 『행복의 철학』. 길, 2011.
-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현실사, 2008.
-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년 12월.
- 김용해. 『젊은이의 행복학』. 서광사, 2011.
- 노영상. 『기독교 생명윤리 개론』. 장신대출판부, 2004.
- 닉 포션·김일순.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라몬 루카스, 김명수 역. 『알기쉬운 생명윤리』. 가톨릭출판사, 2007.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광사, 1996.
- 문시영. 『생명윤리의 신학적 기초』. 궁핍, 2012.
- H.H. 바네트, 최봉기역. 『기독교윤리학개론』.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반신환. 「행복한 가족의 특징」. 『대학과선교』 제8집. 대학과선교학회, 2005년 2월.
- 안호영. 「교양교육을 위한 현대과학과 생명교육」. 『교양교육연구』(제7권 제3호), 2013.
- 양현미. 『문화의 사회적 가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연요한. 「기독교윤리학의 맥락에서 본 ‘행복’개념」.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2집, 2011.
- 이덕환. 『웰빙과 행복』,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이상목. 『동서양의 생명윤리』. 아카넷, 2010.
- 이상원. 『기독교 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총신대출판부, 2010.
- 이종목. 『심리학 노트에 쓴 행복이야기』. 피앤피디자인, 2010.

- 이종원. 『기독교생명윤리』. 북코리아, 2013.
- 이종원. 『온전한 행복의 조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 2013
- 임종식·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2003.
- 정수복. 『포스트모던 행복론』. 『환경과생명』 27호, 2001년 3월.
- 조영기.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 칼 엘리어트., 김종주 역. 『철학적인 병』. 인간사랑, 2005.
- 편상범. 『윤리학 - 행복은 도덕과 갈등하는가?』. 민음인, 2009.
- 페쉬케., 김창훈 역. 『그리스도교윤리학』 제2권. 분도출판사, 1992.
-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삶, 죽음 그리고 기독교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생명윤리와 생명신학』, 한들, 2001.
- Paul Ramsey. quoted in "On Paul Ramsey" by David H. Smith, *Second Opinion*, vii. 6, November 1987.
- Raanan Gillon, "Bioethics, Overview". Ruth Chadwick(ed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 <http://cafe.naver.com/leedongik/1096>

논문투고일: 06. 30.

심사개시일: 07. 11.

게재확정일: 08. 09.

• 국 문 조 록 •

행복의 윤리와 생로병사의 문제는 기독교생명윤리에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적절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만간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임을 희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윤리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를 고려함으로써 행복의 윤리와 생로병사의 윤리학의 연구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와 탐구를 통해서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행복과 생명윤리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함으로써 생명윤리의 주제의 다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강의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행복, 윤리, 생명 죽음, 생로병사, 기독교윤리학
